광주시민사회운동사 한눈에…아카이브 사이트 오픈

시민지원센터 오늘 오픈기념 포럼

1972년 전남대생들의 유신 체제 반대 시위였던 '함 성지 사건', 2013년 푸른길 조성 공원이라는 결실을 맺은 푸른길가꾸기 운동본부의 활약.

역사의 중요한 시점마다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을 지 켜온 광주 시민사회의 역사를 정리한 사이트가 문을 열었다.

광주시 시민사회지원센터(센터장 이기훈)는 22일 '광주시민사회운동사 아카이브 사이트'를 공식 오픈 한다. 지난 2021년 기본 계획을 세운 후 4년만에 이뤄 낸 결실이다.

사이트는 단순한 기록 저장소를 넘어 시민사회의 역 사를 이어가는 공동의 기억 플랫폼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광주공동체의 소중한 사회적 자산이다. 아카이브 에는 1970년대부터 최근까지 축적된 시민사회의 주요 활동기록, 사진, 영상, 문서 등 총 4867건(1만 1463 개)의 콘텐츠가 수록돼 있다.

"센터 운영위에서 오래 전부터 사려져가는 시민사회 의 자료들을 보존해야한다는 의견들이 있었어요. 특히 연로하신 선배 활동가들이 작고하시는 경우가 많아 그 들의 생생한 목소리로 듣는 구술자료들을 확보할 필요 성도 느꼈죠."

이번 아카이빙 사이트 작업을 총괄한 박진영 사업팀 간사는 "활동가 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사이트를 이 용하는 점을 감안해 시민운동이 무엇인지 한눈에 볼





22일 공식 오픈을 앞둔 광주시민사회운동사 아카이브 사이트(왼쪽), 사이트 제작에 함께한 광주시 시민사회지 원센터 직원들 〈광주시 시민사회지원센터 제공〉

수 있도록 정리했다"고 말했다.

센터는 사업이 확정된 후 경제적 여건 등으로 자료 정리에 한계를 가지고 있는 광주 사회단체들의 현실을 감안해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YMCA 등 20여개 단체를 선 정 기금을 지원하고 자료를 정리하도록 했다. 특히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광주YMCA의 자 료는 YMCA의 역사 뿐 아니라 1970~80년대 지역 시 민사회 활동을 가늠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 시민사회 네트워크 차원에서도 큰 힘이 됐다.

센터는 이번 사이트 오픈을 기념해 1970년대부터 현 재에 이르기까지 광주 시민사회의 운동사와 변화의 흐 름을 살펴볼 수 있는 온라인 기획전시 '기록으로 만나

는 광주시민사회운동 발자취'도 열고 있다. 센터는 지 속적인 자료수집과 함께 실제적으로 활동했던 선배 활 동가들의 증언을 통해 '비워진' 시민운동사를 채워나 가기 위해 구술 기록 작업을 꾸준히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센터는 아카이브 사이트 공식 오픈을 기념해 22일 오후 2시 전일빌딩 245 4층 시민마루에서 포럼 '광주시회운동사, 무엇을 남기고 어떻게 기록할 것인 가'를 개최한다. 김호균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이 사회를 맡으며, 박세종 한국호남학진흥원 사무국장 등이 패널과 토론자로 참여해 시민사회 아카이브의 공 공성·활용성·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 견을 제언할 예정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고 전유성, 문화훈장 수훈…김해숙ㆍ이병헌ㆍ지드래곤도

지난달 25일 별세한 코미디언 전유성이 영화배우 김해숙·이병헌, 가수 지드래곤 등과 함께 문화훈장을 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3일 서울 국립극장에서 열리는 '2025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 상' 시상식에서 이들을 포함해 총 31명(팀)이 문화훈 장과 표창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16회를 맞은 대중문화예술상은 가수, 배우, 희극 인, 성우, 방송작가, 연주자 등 대중문화예술인의 사회 적 위상과 창작 의욕을 높이고, 대중문화예술산업 발 전에 이바지한 공을 기리고자 마련된 최고 권위의 정 부 포상이다.

은관문화훈장은 1975년 MBC 7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해 국내 대표 흥행 영화들에 출연해온 '국 민엄마'배우 김해숙이 받는다. 보관문화훈장 수훈자로는 할리우드 영화 등에 출연해 한국 대 중문화의 해외 진출 가능성을 보여준 배우 이병 헌과 고전문학과 철학에 대한 꾸준한 탐구로 대 중문화산업의 큰 기둥 역할을 해온 배우 정동환 이 선정됐다.

옥관문화훈장은 후배 개그맨 발굴 등 인재 양성과 지역 문화콘텐츠 개발에 힘써온 고(故) 전유성과 대한 민국 성우계 발전과 후진 양성에 크게 기여한 성우 배 한성, 한류를 주도하며 한국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가치 를 세계적으로 확장하는 데 기여한 가수 지드래곤(권 지용)이 수훈한다.



전유성





김해숙

대통령 표창 수상자는 배우 김미경·이민호·이정은, 가수 동방신기·로제·세븐틴, 성우 김은영이 선정됐다. 국무총리 표창은 배우 김지원·김태리·박보영·박해준· 주지훈, 가수 에이티즈・트와이스, 연주자 최희선이 받 는다. 배우 고윤정·변우석·지창욱·추영우, 가수 라이 즈·르세라핌·아이들·제로베이스원, 희극인 이수지, 안 무가 베베는 문체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

'고려인의 날' 한마당 행사서 이주민에 쌀 전달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는 지난 19일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 다모아어린이공원에 서 열린 제13회 고려인의 날 '2025 고려인 한마당' 행사에서 고려인마을 이주민 232세 대에 쌀 10kg 232포대를 전달했다. 〈사진〉

이번 행사에는 고려인 동포와 월곡동 주민 등 약 300명이 참석했으며 식전공연과 친교

행사, 기념식 및 축하공연 등 총 3부로 진행 됐다. 전달된 쌀 232포대는 광복절 80주년 을 맞아 대한적십자사와 동아일보가 공동기 획한 '동행 캠페인' 기부금 약 335만원과 LG유플러스 임직원이 모금한 '천원의 사랑 캠페인' 기부금 500만원으로 마련됐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광주사랑의열매, 동구 나눔히어로 인증패 전달



광주시 동구의 '나눔히어로' 가입자가 60 명을 돌파하면서 광주사랑의열매와 동구청 은 21일 '제6기 우리 동네 나눔 히어로' 인증 패 전달식을 가졌다. 〈사진〉

'우리 동네 나눔 히어로'는 광주사랑의열 매가 지역사회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현안 해결을 위한 나눔 문화확산을 목표로 지난 4 월부터 연말까지 진행하는 캠페인이다. 캠

페인 기간 중 100만원 이상을 일시 기부하는 개인·법인에게는 '나눔 히어로 인증패'가 수 여된다.

임택 동구청장은 "우리 동네 나눔 히어로 한 분 한 분의 마음이 모여 동구의 희망을 밝 히고 있다"며 "주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행복한 복지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TV프로그램

2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5 걸어서 세계속으로 트래블홀릭(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7	50 인간극장	00 TV 유치원 30 굿모닝 대한민국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생방송 오늘 아침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8	25 아침마당	50 생생정보 스페셜	50 태양을 삼킨 여자	40 닥터 365 50 좋은아침
9	30 KBS 뉴스	3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재)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55 닥터 365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인간극장 스페셜	45 한글용사 아이야(재)	00 제337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11	10 시사기획 창(재)	10 슈퍼맨이 돌아왔다(재)	15 건강의 재구성 썰록(재)	00 열린TV 시청자 세상
12	00 KBS 뉴스 12	30 개는 훌륭하다(재)	00 12 MBC 뉴스 25 오늘N(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45 위시캣
1	00 다큐 인사이트(재)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스페셜(재)	25 찾아가는 꾸러기교실(재) 55 2시 뉴스 외전	00 보석이네 건강 수다
2	00 KBS 뉴스 10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00 제337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3		00 KBS 뉴스타임 15 월드 24 45 주디세이(재)	55 기분 좋은 날(재)	30 네모세모 스페셜
4	00 사사건건	00 TV 유치원(재) 30 영상앨범 산(재)	55 5시 뉴스와 경제	00 좋은아침 스페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이맘때	00 Why? 15 스컬킹 30 꿀잼 영화가 좋다	10 한국전쟁 75주년 특집다큐 나의 이름은	00 SBS 오뉴스 15 생방송 투데이
6	00 6시 내고향	00 경제콘서트 35 2TV 생생정보	05 빛나는 나의 도시	15 2025 프로야구 PO 4차전 〈한화:삼성〉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일꾼의 탄생 시즌 2	50 친밀한 리플리	05 태양을 삼킨 여자 4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8	30 마리와 별난 아빠들	30 슈퍼맨이 돌아왔다		30 KBC 8 뉴스
9	00 KBS 뉴스 9	50 배달왔수다	00 손석희의 질문들	00 SBS 8 뉴스
10	00 생로병사의 비밀 50 KBS 뉴스라인W		30 라디오스타	20 KBC 8 뉴스 50 더 리슨 5
11	30 이슈 픽 쌤과 함께 스페셜	10 은수 좋은 날(재)		
12	00 KBS 중계석 〈KBS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35 아이 러브 스포츠	15 MBC 뉴스 25 35 웰컴 투 스포츠	10 닥터 365 20 시사터치! 따따부따 40 경이로운 도전(재)

EBS₁

05:00 왕초보영어

05:30 클래스 e 05:50 한국기행

-쌀국수 먹으러 가는 길〉

07:15 무지개 강아지 딜런의 모험

07:30 엄마까투리

07:45 레인보우 버블젬

08:20 수상한 방송국

08:50 샤샤 앤 마일로

09:20 세계 극한직업

06:10 세계테마기행 〈대통령 요리사의 베트남 여행법

07:00 고고다이노 해양구조대

08:00 딩동댕 딩동댕

-추성훈의 밥값은 해야지(재)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뉴스 12

12:10 왔다! 내 손주(재)

13:00 EBS 평생학교 1교시 13:45 EBS 평생학교 2교시

14:30 나의 두 번째 교과서

15:10 고향민국 15:40 마샤와 곰

15:55 블록스

16:10 딩동댕 딩동댕 16:30 수상한 방송국(재)

17:00 페파피그

17:10 티시태시

17:40 티시태시와 춤추고 노래해요! 17:50 사내수공업 가수 - 다비드 봉(재) 18:10 EBS 뉴스

18:30 건축탐구 - 집 19:20 고향민국

19:5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20:40 세계테마기행

〈히말라야 신비의 땅, 무스탕

-은둔의 왕국, 로만탕〉 21:35 한국기행

〈가을 한 입, 인생 한 술 3부

토종꿀 드셔보셨어요?〉

21:55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

22:45 PD로그

2 010-9790-8237

23:40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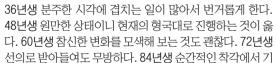
丑

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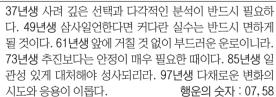
辰

巳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22일 (음 9월 2일 甲子)



모습을 의식할 필요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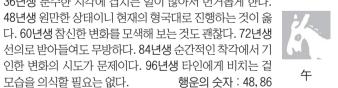
38년생 상대의 눈빛 속에서 많은 의미를 파악할 수 있으리 라. 50년생 이익에 집착한다면 오히려 손해를 보리라. 62년 생 전혀 상관없으니 완전히 무시해도 되는 조후이다. 74년 생 의외의 인연이 활로를 열어줄 것이다. 86년생 결과보다 진행 과정에 비중을 두는 것이 합리적이다. 98년생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 질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28,70

39년생 여러 말을 다할 필요 없이 핵심적인 몇 마디만 하면 그만이다. 51년생 괜히 나서다가는 실기할 수이다. 63년생 단순해 보일지라도 실제 내막은 복잡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 다. 75년생 뒤늦게야 절실히 깨달을 것이다. 87년생 관심 있 게 살펴본다면 파악할 수 있으리라. 99년생 터무니없는 소

문에는 귀기울일 필요 없다. 행운의 숫자: 04, 79 40년생 핵심 정곡을 찔러서 처리할 수 있는 혜안이 절실하 다. 52년생 성향과 규모에 따라 대응 방법을 달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64년생 마음에 차지 않는다면 차제에 분명하게 분리해 두는 것이 편하다. 76년생 일관되게 진행하는 것이 정답이다. 88년생 유지하고 있을 때 효과적이다. 00년생 선

41년생 관계자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소 지연될 수도 있음 을 생각하는 것이 옳다. 53년생 연쇄적인 관계에 놓여 있음 을 알라. 65년생 고난은 삶을 단련시켜 줄 것이다. 77년생 후회할 때는 이미 늦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89년생 장래의 전망을 밝게 할 것임은 분명하다. 01년생 실익이 없다면 아 예 관련시킬 이유도 없겠다. 행운의 숫자: 47,60

의를 악용하려는 이가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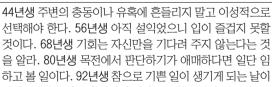
42년생 별로 마음에 차지 않더라도 상대에게 따라 주는 것 이 마땅하다. 54년생 균형과 실용이 중할 때이니 인간관계 의 처세에 신경 써야겠다. 66년생 생산성을 도모하지 않으 면 의미가 없다. 78년생 자신의 내부에서부터 기인한 것이 니라. 90년생 사실은 별것 아니니 완전히 무시해도 된다. 02년생 주견이 필요하도다. 행운의 숫자: 01,63



申

酉

43년생 상대를 배려해 주는 것이 궁극적으로 이롭다는 것을 알라. 55년생 부수적인 것은 미루고 당면 과제에 집중적으 로 매진하는 것이 옳다. 67년생 가랑잎에 불붙듯이 일어나 는 기세이다. 79년생 과업을 도모해도 전혀 무리가 없는 때 이다. 91년생 앞만 보고 진행하는 것이 최상책이다. 03년생 바람직한 일을 꾀하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09, 71



니라. 04년생 재물과 인연이 깊다. 행운의 숫자: 43,92 45년생 도움이 절실하니 몸을 낮추고 구하라. 57년생 구체 화되면서 가능성을 높이게 되느니라. 69년생 활용한다면 가 장 절실한 부분을 해결할 수도 있다. 81년생 그 무엇보다도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하다. 93년생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아예 시작하지 않는 편이 백번 낫다. 05년생 변동하지 말고

우선 관망하는 것이 낫다. 행운의 숫자: 32,99 46년생 센스 있게 대처하고 재치 있게 판단해야만 무리가 따르지 않을 것이다. 58년생 실행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아 직 조건을 갖추지는 못한 셈이다. 70년생 희망의 노래가 점 점 가까이 들려오고 있도다. 82년생 생활화한다면 참으로 유용할 것이다. 94년생 실현 가능한 방책을 강구하자. 06년

행운의 숫자: 37,66

47년생 제3자의 관점이 오히려 더 정확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라. 59년생 대단히 신기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 는 날이다. 71년생 제반 여건을 고려한 후에 진행하는 것이 맞다. 83년생 하나의 조치로 여러 가지를 이루리라. 95년생 능숙하지 못한다면 속히 도움을 청하자. 07년생 영광스럽고 복된 날이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45,56

생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라.



戌

행운의 숫자: 40,83